

사회

광주 세무공무원 피살사건 원점으로

광주고법, 용의자 '앵벌이' 3명 알리바이 확인 모두 무죄

지난해 광주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의 법인으로 지목된 속칭 '앵벌이 3인조'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기소된 박모(20), 이모(19), 노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치사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서울 등에서 저지른 절도죄 등을 인정해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터미널 등지에서 '앵벌이'로 생계를 이어온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17일 세무공무원인 광주시 서구 김모(31)씨의 원룸에 침입, 저항하는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이 사건 외에도 서울 등지에서의 절도 행각이 들끓으면서 일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박씨에게는 징역 6년, 이씨와 노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죄만 인정하고 '김씨 살인사건'에 대해서

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박씨와 이씨는 나주의 한 PC방에, 노씨는 서울의 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자백한 것은 IQ 64~71 정도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을 못 이겨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 살해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는 한편, 향후 감압수사 여부 등 경·검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나원침 (7918) 김장두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공단 4번 도로 인근 운동장에서 열린 '한가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선수 80명이 경기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나원침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추석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 있어 외롭지 않아요”

“고국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일손을 놓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 등의 주최로 '제1회 한가위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열린 광주시 광산구 옥동

다. 하지만, 거친 태클에 넘어진 상대방 선수에게는 손을 건네 일으켜 세워주는 동료애를 발휘했다.

응원은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 한국 젊은이들의 유행에 맞춘 듯 금발염색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20대 초반의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람석에서 춤을

러인 손(Son·56·우즈베키스탄)씨는 “우리도 추석날 송편을 빚어 먹는다. 음식·문화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고국에 세 자녀를 두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나마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날 만큼은 밝은 얼굴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국적·언어·피부색은 달라도 흥겨움은 마찬가지로 보였다. 경기 후 이들은 주회 측에서 마련한 송편·돼지고기 볶음·과일·산적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고향의 그리움을 달랬다.

“풍작을 기원하거나 추수에 감사드리는 날짜는 다르지만 분위기는 비슷해요.” 이날의 공통어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서투른 한국말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풍성한 한가위의 흥겨움을 함께 나눴다.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 김복주(47) 목사는 “추석을 맞아 외롭게 지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평동공단서 7개국 300여명 축구대회

송편·산적 먹으며 고향의 그리움 달래

평동공단 4번 도로 인근 운동장.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 꽃이 활짝 폈다. 웃음 꽃도 만발했다. 가나·나이지리아·베트남·세네갈·인도네시아·중국·태국 등 7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300명은 먼 이국에서의 고달픈 생활을 잠시 접은 채 추석 연휴를 마음껏 즐겼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축구대회. 첫 경기는 태국 대 베트남. 두 나라 선수대표 22명은 자국 국기와 비슷한 유니폼을 갖춰 입고 전·후반 40분간 운동장을 누볐다.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다른 나라 선수들도 손장단을 맞추며 목청을 높였다.

하남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마셀(Marcel·37·나이지리아)씨는 “한국에 온 지 1년6개월이 됐는데,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다. 우리도 크리스마스때 한국의 추석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전통음식인 '푸푸'(fufu)를 먹으며 소원을 빈다”며 “비록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흐뭇해 했다.

평동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

짧은 연휴 사건·사고도 갖가지

사소한 시비 주먹다짐 살해 2건이나

추석 연휴기간 광주·전남은 짧은 연휴에 따른 차량 '출렁 현상'으로 인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으며 화재와 폭행치사 등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행소니 등 교통사고 속출=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총 14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98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소니 등 교통사고 속출=4일 경찰청은 4일 새벽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몽골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김모(30)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경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도로에서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몽골인 아모(25)씨 일행을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소한 이유로 폭행치사=보성경찰청에 따르면 3일 새벽에 술집에서 옆테이블의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강모(23)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께 보성군 득량면 한 술집에서 김모(23)씨가 ‘짜레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툰 뒤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수경찰은 3일 술집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모(36)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전날 밤 9시에 여수시 화강동에서 고교 동창생 임모(37)씨가 ‘복싱’ 스파링을 하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데 격분, 임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방화 추정 화재·벌소임 사망도=3일 낮 12시께 여수시 교통 2층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김모(39)씨가 2~3도 화상을 입었다. 앞서 1일 오후 2시10분께 담양군 봉산면에서는 구모(81)씨가 말발에 쏘여 숨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소환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병중 고흥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고흥군 안락에서 제기돼 온 승진 관련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아 불에 강제 입맞춤 벌금 1천만원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8살 짜리 여자 아이의 불에 강제 입맞춤한 5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 대해 “자신을 피해 달아난 아이들을 제지하고 불에 입을 맞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낯선 남자 어른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입을 맞춘 것에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

○문씨는 지난해 추석과 지난 1월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골목에서 이웃에 사는 여자 어린이 2명을 붙잡고 불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정태석 前 광주은행장 배임 '무죄'

불법 주식투자 등은 유죄...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4일 은행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종가를 관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담대에 은행돈 2억원을 기부해 교수로 초빙된 자신의 인건비로 쓰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행장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부터 8개월간 은행 자금 154억원으로 모 업체의 주식을 매입토록 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20여차례에 걸쳐 종가관리에 관여하고 주식 대량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막걸리 청산가리' 父女

법정서 범행 전면 부인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자신의 부인(어머니)과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녀(父女)가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준호)는 지난 1일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딸 B(26)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부녀는 50여분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물이 공묘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수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15년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 축구 대회
- 송편 만들기
- 산적 만들기
- 전통 음식 체험
- 문화 공연 관람
- 한국어 교육
- 의료 상담
- 법률 상담
- 취업 상담
- 상담 서비스

문의: 061-260-1111 (광주외국인근로자체육센터)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4번 도로

www.kwerc.or.kr